하나님 사각지대 없애는 CCTV

(역대상 21:18~30)

18.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9.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20. 그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21.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22.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23.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24.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25.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각지대 없애는 CCTV>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사각지대 없애는 CCTV'
CCTV는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언제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보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범죄행위의 장소로 이용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그대로 비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우리 삶의 전체가 염려와 걱정과 불행으로 이끄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없었습니다.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보일 때에 그곳은 에덴이 됩니다.
기쁨과 참 만족의 유일한 조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보이면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성전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CCTV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져 온역으로 하루에 칠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징계를 잠깐 멈추게 하시는데, 징계의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잠시 서게 됩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대기는 유별날 정도로 다윗의 역사 속에서 어두운 면의 기록을 제외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좋은 면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종식 되는데 이후에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또한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는데,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면밀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완벽하게 표현했던 그 장소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다윗의 인구조사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결국 다윗의 죄악과 성전의 존재 이유를 연결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다른 언어로 성전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조사와 연결해서 볼 때 성전의 존재 이유는 CCTV와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어 법궤의 구성에 맞춰 볼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있는지

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향단의 기도가 의미하는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떡상이 의미하는바 하나님으로 배부려고 하는지, 등대가 의미하는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지만 그 마음을 항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냄으로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한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무리 못 됐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곳은 에덴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CCTV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가리는 사각지대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윗에게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 끝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리가 가끔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승리가 주어질 때마다 엄청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직접 싸우는 군대의 모습을 바라보던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와 군대를 묶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면 다윗은 속으로는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을지라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알고 있는 신앙 고백적 지식과는 상관없이 눈으로 보는 것이 반복되다보면 마음은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마음에는 매번 반복되는 승리와 동시에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군대를 보면서 승리가 군대 위에 서있게 됩니다.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분명히 그의 고백적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눈이 보는 승리와 군대의 연합을 따라가면서 전쟁의 승리가 군대 위에 서있는 것으로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정되고 왕의 백성이 백배나 더 많아지기를 바라니 이런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을 연결시켜 보았다면 군대의 숫자는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그 아이디어 자체가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대와 연결이 되다 보니 군대가 궁금했고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인구가 몇 명이라고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칼을 뺀 자가 백오십칠만 명이라

고 보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뿌듯했을 것인데 그러한 마음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사시냐고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직장을 잃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삶의 가능성은 생활비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직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직장이 없어져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걱정이지 직장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일지라도 남편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에 마음이 따라가고 맙니다. 생활의 근거를 직장에서 찾게 되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는다면 승리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를 생각해보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미리암과 함께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작 삼일이 지나서 마라의 쓴 물을 마시게 되자 모든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반나절만 더 갔으면 열두 샘과 칠십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반복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십년의 광야생활에서 다 죽고, 육십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자 마음에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복지가 될 수 없고 에덴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쁨과 만족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사각지대를 만드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그냥 정해진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을 담그실 때에도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 레시피대로 김장을 담으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내 마음에 불행의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틀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데 이미 가족이라는 틀을 출발점으로 전제된 관계

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에 앞서서 이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이 침투되어 있고 나라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전제한 상태에서 삶을 살 때에 그 영역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일지라도 그것이 삶에서 전제가 되어 하나님을 생각함보다 먼저이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두부미꾸라지숙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부와 찬물이 있는 냄비에 미꾸라지를 넣고 끓입니다.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면서 미꾸라지가 시원한 두부 속으로 파고들다가 결국은 같이 익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내 마음 안으로 침투합니다.
나의 가족이나 직장, 건강문제, 나라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침투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살면 침투해 들어온 모든 것에 사각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각지대 뒤로 둔 상태에서 지금 되어 가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곳이 사각지대이고 하나님의 사각지대는 곧 에덴 밖의 추방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추방된 장소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성전의 존재의미이기도 합니다.
번제는 세상이 침투한 나의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고 아무것에도 침투되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아내가 단순한 아내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아내로 보입니다. 자녀도 단순히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자녀로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자연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 하나까지도 붙잡고 계심이 보입니다. 백합화에서도 공중을 나는 새에게서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 뒤에도 하나님께서 계심이 보입니다. 가룟유다나 빌라도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암을 낫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러한 기도는 암을 걸리게 하시고, 내 몸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각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암이 걸릴 때에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인데 그 사각지대를 놔둔 상태로는 기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암으로 인해 걱정이 침투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내 마음은 완전히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십 일간 세상에 계셨지만 동시에 이미 세상 바깥에 계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 따라 하늘로 올라간 마음은 화목제가 의미하듯이 아버지와의 연합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암이 걸린 내 몸조차도 내 바깥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암이 걸린 것도, 그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반복될 때에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암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낫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퇴행성관절염이 왔어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러한 기도가 나의 질환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 사각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오히려 질환이 침투한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도 부활하게 되면, 내 마음은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먼저 끌어안고 내 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후12:9절에서 바울이 몸에 가시를 안고 살면서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했던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의해 침투된 내 마음이 죽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화목제가 뜻하는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실 때에 나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각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남편이 월급을 받아와도 그 월급은 직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에 직장은 잃더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실지가 궁금할 수는 있을지언정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직장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이 침투한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우리 삶 전체의 하나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CCTV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삶의 모든 장소가 에덴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장소를 에덴으로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어렵게 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각지대만 없애면 됩니다. 성전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십자가가 CCTV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CCTV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 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 백체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